

멈춰 선 물레방아

우리네 삶을 물레방아 인생이라고도 하고 수레바퀴 인생이라고도 한다. 두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바퀴의 중심축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 중심축이 내 신앙의 절대자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핵심 가치일 수도 있다. 그 중심축이 무너지면 물레방아도 무너진다. 즉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축은 절대성이다. 반면에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퀴살은 인생의 반복성이며 상대성이다. 태어남과 죽음,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행복과 불행, 건강과 아픔, 젊음과 늙음, 부유와 가난, 성공과 실패, 등등 대부분의 삶의 가치에는 상반적 가치가 존재한다. 내 삶에는 그러한 가치들이 맞물려 돌고 도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상반적 가치임을 잊고 살 때가 많다. 마치 지금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처럼, 지금 불행하면 죽는 날까지 불행할 것 처럼 착각하고 산다. 지금의 가치 저 건너편에는 상반된 가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고 사는 것이다.

우리 세대는 조영남씨가 리메이커 해서 부른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가사를 기억하고 있다. 원곡은 C.C.R 이부른 <Proud Mary>였는데, 중학생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흥얼거리곤 했다. 학교 소풍이나 바닷가 캠핑이라도 가면 그 곡에 맞춰 정체불명의 춤을 추며 괴성을 지르던 기억이 새롭다. “세상 만사 둥글 둥글 / 호박같은 세상 돌고 돌아 / 정처없이 이곳에서 저 마을로 /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렇다. 물레방아는 둥글다. 물레방아는 24 시간 돌아가는 묵묵함과 지속성이다. 물레방아는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순리와 순종의 삶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둥글다. 동그라미는 반복성인 반면에, 연속성이고 영원성이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그 길이가 길고 짧음이 아니며 언제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나 윤회 역시 동그라미다. 이승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태어남과 죽음의 직선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다시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바퀴살 저 맞은 편에는 행복과 부유로움이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직선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삶이 직각으로 모서리져서 그 모서리 끝에 서면 절벽으로 떨어질거라는 두려움으로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며, 절망하는 자는 마치 세상의 끝인듯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은 둥글고, 그 둥근 세상은 돌고 돈다는 사실만 자각해도 훨씬 삶에 여유로움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물레방아나 수레바퀴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바퀴를 돌리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물레방아는 <낙수물>이 필요하고, 수레바퀴는 끌고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하여 앞에서 끌어 주거나 낙수물이 되어 주지는 않는다. 펌프의 <마중물>도 같은 개념이다. 요즘 우리 지역의 한인 사회를 보면 멈추어 선 물레방아를 연상케 한다. 설령 멈추어 서지는 않았지만 낙수물이 너무 약해 거의 기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나 할까. 돌아가지 않는 물레방아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낙수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물레방아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주체성을 상실한 종속성이다. 물레방아가 돈다는 의미는 <변화>를 말함이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변화하지 않는 사회는 침체되어 소멸한다.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두려움, 망설임, 안주함, 게으름이다.

요즘 우리 지역 한인 사회의 단상을 살펴보자. 큰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한다. 사업할 돈이 없거나 주급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망설어져 현실에 자위하고 안주한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멈추어진 상태다. 미국 외지나 한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인구도 극히 줄어들었다. 교포 2 세들은 아버지 세대가 하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새로운 다른 사업목표가 분명한 것도 아니다. 요즘 한인 사회를 보면 한인들이 하는 모든 업종이 불만이다. 요즘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한물 갔다>이다. 세탁소도 한물 가고, 블랙퍼스트도 한물 가고, 뷰티 서프라이는 일찌감치 한물 갔고, 비어 관련업종도 한물 가고, 한때 반짝이든 드랍스토어도 한물 가고, 네일 가게도 한물 가고, 이것 저것 모두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한물 갔으면 무슨 업종을 원하는지, 무얼 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가게 매물은 어느 때에 비해 흘러 넘친다. 그 중에는 좋은 매물도 많다. 매물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내놓은 매물들만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들이 있어서 내놓은 매물들이다. 몇년 전만 해도 나는 이, 삼십개의 매물만으로 이 사업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10 배 이상이나 많은 삼,사백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어느 민족 브로커와 경쟁해도 자신이 있다. 하지만 매매에는 쌍방이 있다. 매물은 많지만 Buyer 가 약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Seller 분들께서는 빨리 팔아드리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다. 나의 소견으로는 요즘 Buyer 들은 첫째가 자본이 약하고, 둘째는 좋은 가게를 사서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나 열정이 약한 것 같다. 흥청망청한 한국에 편승하여 함께 안일해져 가는 것인가. 이민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각박하고 치열하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면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과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Buyer 라면 온 천지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도와드리고 싶다.